

## 臨床 실습이 말해 준다

가슴 벅찬 가관식을 끝내고, 기쁜마음 한편, 두려운 심정으로 임상실습 첫날을 맞이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피로워 하면서 보다 건강회복을 돕고, 마음의 안정을 주기위해 노력해야 하고, sense 있는 머리로서 기술을 빨리 익히고, 마음놓을 수 있는 간호원이 되어 한다는 긴장감이 늘 주위를 감돌고 있다. 막상 환자를 대하니, 모든 것이 낯설게 보이고, 어색하고 또 한편 위축감도 느꼈다. 혹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배운 것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은근한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예상의로 간호원 선생님들은 우리들을 아주 조심히 다루셨다. 특히 우리 15층은 더 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시키지 않았고, 관찰(observation)을 따로 시키면서 쉬운 일만을 맡기셨다. 하지만 실습 3시간 동안에 만족한 실습훈련은 못 배우는 것 같았다. 아침 8시에(7시 50분까지) 출석하여 보고(report)받고, 침상만들기.bed making)하고 회진따라 다니고 T.P.R.을 채면 벌써 11시가 다 되어 갔다. 하지만 열심히 하긴

했다.

할 일이 없을때 일부러 말은 방에 가 불편한 것 없느냐고 물어며 다니곤 했다. 그때마다 꼭 해야 할 일이 나타나곤 했다. I.V.가 다 들어가 바늘을 뽑아야 할 경우, 안파환자 혼자서 물을 마시려는 것을 깨닫춰 들어가 도와주었고, hotbag 갈아야 한다면가 스스로 들어가 본 것이 좋은 결과로서 기뻐할 수 있었다.

간호원이 조금만 더 신경, 배려를 한다면 환자도 매우 좋아하고, 상쾌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느껴곤 한다. 하루종일 얼마나 불편할까? 마치 보보라도 된 기분도 들었었다. 하긴 사람이 아프면 어린아이 같이 조그마한 일에도 투정을 잘한다.

아직은 일주일에 두번씩 3시간 정도밖에 안되지만, 몇몇 환자들과는 친하게 되었다. 그들이 선뜻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불편한 곳을 자세히 얘기해 주곤 한다. 비록 배운 것 적고 경험이 없는 나자신이지만 그때마다 날 믿고 얘기하는 그 환자들이 고맙웠다. 또 더

욱 관심을 쏟게 된다. 보다 친절하게, 특히 우리층엔 안파환자가 많아 앉을 곳보는 환자가 많다. 그러기에 말어조를 특히 조심히 하고 자주 가서 불편한 곳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어느 환자는 너무나 고맙다는 말도 했다. 내 작은 정성으로 그들이 보다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에 보람을 느끼곤 한다. 말 없이 조용히 정성으로 대해야 한다. 실습을 통하여 크게 하나 배운 것이 있다. 그것은 말 없이, 불평 없이 인내로서 일을 행하는 것이었다.

가끔 짓는 미소가 환자들의 얼굴을 더욱 환하게 해준다는 것도 알았다. 비록 내가 자신들의 딸이 아니고 동생뻘이 되지 않더라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호원은 단지 bed making 이나 T.P.R.(체온, 맥박, 호흡) 같은 것들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2학기 초기부터 “차라리 의사가 될걸”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간호원이 하는 것은 단



지 의사의 order와 시종밖에 드는 것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었다. 하지만 간호원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유능하고, 인정받는 간호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환자에 대해 병리학적인 면에서나, 임상적인 면에서 의사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식있는 간호원, 의사도 무시할 수 없는 세심하고 유능한 간호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임상실습을 통해 느낀 것은 병원 현재 간호원들 자신이 배운 학문을 활용 못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잊어버렸기도 하겠지만 진단같은 것을 조연정도 못한다는 것, 퇴진時 환자 상태에 대해, 환자의 치료를 위한 조연정도 못하고 단지 Dressing 준비나 하는 그런 간호원이 다였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말은바 책임을 다 이행치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스스로 다진한 것은 배우는 학문을 몸에 익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환자에 대해 상의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노련하고 익숙해진다면 저

절로 나이적은 의사가 무시 못한다고 할지 몰라도, 한 예술 분야내에서 음악과 미술이 서트를 무시할 수 없듯이, 의사와 간호원은 서로 맡은 분야가 독립돼 있고 세속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서로 도와가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물론 의사가 그만큼 더 깊이 많이 배운다지만, 간호학이라는 별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간호원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이해해 주고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상실습에 임해야겠다. 단지 간호학분야가 아니라, 미술, 음악, 문학, 다른 전공분야에 박식해져서 환자들과 보다 뜻있고 폭넓은 대화를 나누어 보다 나은 치료에 도움이 돼주고 싶다.

神께서 내게 내리신 직무에 충실하고 싶다. 각계 각종의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 모든 이들과 어색함 없이 따스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간호원이 되어야겠다. 이 간호원이란 직무는 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차분하고 책임

감 있고 인내성 갖게 되며 원만한 인격으로도 드는 것을 이해하고 풀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서 한 인간의 완성을 위해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건강에 힘쓰며 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병든 인간을 간호한다는 인간의 면에서 정성을 드리고 싶다. 절만 하얗고 순박한 것이 아니라 속 마음, 어느 곳을 대해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간호원이 되고 싶다.

이제부터이다. 이제 몇년 더 나가면 3학년부터 본격적 신경을 쏘아야 하겠지만, 순간순간에 충실할 수 있다면 더 부족할 것 없을 것이다. 내 삶을 보다 뜻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간호원. 白衣의 天使. 가슴 뿌듯하고 어떤 자부심에 온몸이 다시금 생기가 도는 듯하다.

밝은 날 새벽 풍기처럼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품고 있을 天使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럼없을 내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